그린란드 폭풍에도 살아남는 메모리 온기

Market 황산해 _ sh.hwang@ls-sec.co.kr
Quant 고세은 _ kose@ls-sec.co.kr

그린란드 사태가 흔든 시장, 그럼에도 견조한 메모리

미 증시는 DOW -1.76%, S&P 500 -2.06%, NASDAQ -2.39%, Russell -1.21%로 하락 마감. 트럼프발 그린란드 리스크가 주식, 채권 시장 전반을 압박. 유럽의 대응(셀 아메리카, ACI)에 따른 피해 불가피한 빅테크와 테슬라(-4.2%)를 비롯 수출관련 경기 소비재, 산업재가 대체로 부진. 다만 AI 밸류체인에서 공급망 병목에 따른 수혜 모멘텀 유지되는 마이크론(+0.6%) 등 레거시 반도체 영역은 견조한 모습 유지했으며 그 외 필수소비재, 헬스케어, 에너지 등 방어적 영역이 아웃퍼폼

미 국채 금리는 2Y 3.60%(+1.1bp), 10Y 4.29%(+7.0bp)로 상승. 유가는 WTI 기준 +0.24% 상승한 $59.48. 금은 +2.0% 상승하며 지정학적 리스크 반영

격화되는 그린란드 리스크와 셀 아메리카

트럼프 대통령이 14 일 그린란드 병합 야욕을 드러낸 뒤 해당 이슈가 유럽국가들과의 무역분쟁으로 확장. 셀 아메리카 기조도 등장했는데 수입 제품부터 유럽 기금들이 보유한 금융자산까지 영향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에 파병한 8 개 유럽국을 대상으로 2 월 1 일부터 10%, 6 월 1 일부터는 25% 관세부과를 발표. 대상국들은 즉각 반발. 과정에서 EU 측은 무역위험 대응조치인 ACI(Anti-Coercion Instrument) 카드까지 검토. 이 과정에서 빅테크를 비롯 테슬라, 산업재 등 EU 향 매출 비중이 높은 IT 플랫폼 및 수출 기업 피해 가능성 부각. 기존 ACI 법안은 2023 년 대 중국용으로 통과. 경제적 압박에 대비해 강압적 경제 침탈이 이뤄지는 경우 지적재산권을 비롯해 무역, 투자, 금융 등 대부분의 권리를 제한 가능

셀 아메리카에 대한 우려도 부각. 지난 4~8 월 유럽지역에 한차례 발생했던 미 제품 불매 운동 상기. 당시 해방의 날과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로 유럽 전역에 셀 아메리카 기조 확산. 테슬라 자동차를 비롯 미국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발생. 다만 금번 이슈는 연기금들이 보유한 미국 금융자산 대상으로도 발생. 덴마크 연기금은 보유한 1 억달러 규모 미국채를 전량 매각

한편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다보스포럼에서 금번 그린란드 사태 수습을 시도. 러트닉 장관은 금번 사태를 동맹간의 소동으로 규정했으며 베센트 장관은 미 국채 금리 움직임은 지정학 리스크가 아닌 일본 국채가 폭락에 의한 것이라 일축

관세 판결은 2 월말까지 지연, 트럼프의 의도?

대법원은 20 일에도 관세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에 대한 별도 공지도 부재. Polymarket 에서는 1 월 중 관세 판결이 나올 확률이 75%에서 14%로 급락. 대법원이 4 주간의 휴회에 들어가기 때문. 기간 관련 없이 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릴 확률은 기존 70%중반에서 69%로 하락. 일부 언론에선 현 지정학적 이슈가 관세 판결 지연 및 대법원 판단 영향을 의도했을 수 있다는 주장. 더해 11 월 심리 당시, 빠른 판결이 진행될 것이란 전망과 달리 지지부진한 속도도 복잡한 정세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

동시에 해당 사태가 노이즈에 그칠 것이라는 기조가 강하게 유지. 지정학적 노이즈에도 Polymarket 상 그린란드 병합 가능성은 10%대 후반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2 월 1 일 실제 그린란드 관세 부과 확률도 30%대 후반에 그침. 주요 기관들도 TACO, TUNA 등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 패턴과 다가올 중간선거 등에 주목하며 실질적으로 위험한 행동은 없을 것이라 관측

Global 주요 증시

주요국가	전일 종가 (pt)	장중 추이	수익률 (%)				
			1D	1W	MTD	1M	YTD
DOW	48,488.59		-1.76	-1.43	0.88	0.73	0.88
S&P500	6,796.86		-2.06	-2.40	-0.71	-0.55	-0.71
NASDAQ	22,954.32		-2.39	-3.19	-1.24	-1.52	-1.24
Russell 2000	2,645.36		-1.21	0.47	6.59	4.58	6.59
Stoxx 600	602.80		-0.70	-1.25	1.79	2.60	1.79
영국(FTSE)	10,126.78		-0.67	-0.10	1.97	2.32	1.97
상해종합	4,113.65		-0.01	-0.61	3.65	5.74	3.65
홍콩H	26,487.51		-0.29	-1.34	3.34	3.10	3.34
니케이225	52,991.10		-1.11	-1.04	5.27	7.04	5.27
KOSPI	4,885.75		-0.39	4.12	15.94	21.52	15.94
KOSPI 200 선물	707.60		-0.02	1D 수익률은 미국 증시 개폐장 시점 기준으로 측정하였습니다			
KOSDAQ	976.37		0.83	2.89	5.50	6.68	5.50
인도(NIFTY)	25232.50		-1.38	-1.94	-3.43	-2.83	-3.43

FICC

구분	전일 종가 (pt)	20D 추이 Daily	변동(bp, %)				
			1D	1W	MTD	1M	YTD
미국채 2년(%)	3.60		1.1bp	6.4bp	12.4bp	11.3bp	12.4bp
미국채10년(%)	4.29		7.0bp	11.3bp	12.6bp	14.5bp	12.6bp
국고채3년(%)	3.18		5.3bp	18.4bp	23.2bp	16.8bp	23.2bp
일본10년(%)	2.35		9.3bp	18.6bp	29.2bp	33.5bp	29.2bp
달러인덱스(pt)	98.55		-0.85	-0.59	0.23	-0.05	0.23
NDF 환율(1M)	1479.05		0.49	0.20	2.75	0.36	2.75
유로/달러	1.17		0.68	0.71	-0.18	0.13	-0.18
위안/달러	6.96		-0.05	-0.25	-0.41	-1.15	-0.41
엔/달러	158.15		0.03	-0.62	0.92	0.25	0.92
WTI(NYMEX)	59.48		0.24	-2.38	3.95	5.54	3.95
천연가스	3.89		25.23	13.66	5.43	6.00	5.43
구리(LME)	12970.83		-1.52	-1.68	4.13	8.97	4.13
금(NYMEX)	4763.43		1.98	3.86	10.28	9.78	10.28

특징주: NVDA 지정학 리스크 재부각, 다만 SNDK 논외

엔비디아: NVDA — -4.3%, 지정학 리스크 직면

지정학 리스크 고조되며 주가 하락세 지속. **그린란드 사태에 따른 시장 전반의 Risk-Off 심리와 함께, 중국과의 관세 갈등 여파 부각된 영향**. FT 보도에 따르면, 협력사들의 중국향 H200 부품 생산이 일시 중단됨. 이는 중국 세관의 수입 규제에 따른 결과. 해당 생산 라인이 중단될 경우, 재가동까지 수개월이 소요됨. 다만 일련의 노이즈에도 주요 IB는 강력한 펀더멘털에 주목. 가령 Citi는 엔비디아와 함께, 브로드컴, NXP세미, 아날로그 디바이스를 최선호주로 제시. 해당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가운데, 현 시점이 매력적인 진입점임을 강조

샌디스크: SNDK — +9.6%, 홀로 순항하는 메모리

기술주 전반의 매도세 속, 샌디스크 비롯한 메모리 업종 강세. 마이크론(+0.6%), 웨스턴 디지털(+0.6%) 등은 강보합 마감. 시장이 주목하는 부분은 해당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 하이퍼스케일러의 경우 수익성에 대한 시장 의구심을 해소해야 하지만, 메모리 기업들은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를 오롯이 받기 때문. **특히 샌디스크의 경우, PC/스마트폰 수요 감소에도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가 이를 상쇄할 것이라는 의견 존재**. Citi는 투자의견 매수, TP $280→$490 상향 조정

3M: MMM — -7.0%, 관세 리스크 직접 경고

4FQ25 실적발표. 매출 $6.10B, EPS $1.83으로 컨센(매출 $6.01B, EPS $1.80) 상회. **다만 주가를 억누른 요인은 관세 리스크. CEO는 미국과 유럽 간 무역 갈등이 FY26 실적 압박 요인임을 경고**. 동사의 유럽향 수출은 연간 $700M 규모, 미국 수입은 연간 $2.5B 상당. 관세율을 10%로 낙관적 추정하더라도, 그 손실은 상당한 수준이라 언급. 더해 FY26 연간EPS 가이던스는 $8.50~$8.70으로 중간값 기준 컨센($8.61) 하회

넷플릭스: NFLX — -1.1%, 마감 후 -4%대 하락, 기대 못 미친 가이던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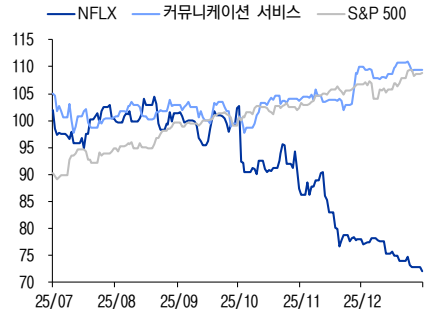
4FQ25 실적발표. 매출 $12.05B, EPS $0.56으로 컨센(매출 $11.97B, EPS $0.55) 상회. **CEO는 FY26 광고 매출이 전년 대비 "약 두 배 증가할 것"이라 언급하기도. 다만 높은 시장 기대 속, 가이던스가 컨센 하회하며 주가 하락**. 1FQ26 분기 가이던스는 매출 $12.16B, EPS $0.76으로 컨센(매출 $12.17B, EPS $0.81) 하회. 번외로 워너브라더스 인수 제안 방식은 전량 현금 인수($72B 규모)로 변경된 상태

기타 코멘트 — PLTR(-1.4%), LULU(-6.5%), UAL(-4.3%)

팔란티어(-1.4%)는 HD현대와의 "수억 달러" 계약규모 가능성이 보도되며 주가 방어. **룰루레몬(-6.5%)**은 지정학 불확실성과 함께 경영권 분쟁 지속. 동사는 사업 부진 속 엘리엇의 개입으로 경영권 교체가 촉구되고 있음. **유나이티드헬스(-4.3%, 마감 후 +3%대 상승)**는 컨센 상회한 실적 및 가이던스 발표하며 장 마감 후 주가 강세

샌디스크: SNDK

넷플릭스: NFLX



● S&P500 섹터 수익률

순위	섹터 Top 세부업종	1D	Bottom 세부업종	1D
1	필수소비재	0.12		
	음료	1.88	담배	-2.95
2	에너지	-0.17		
	석유/가스/소모연료	-0.10	에너지 장비/서비스	-0.90
3	건강관리	-0.21		
	헬스케어 업체/서비스	0.13	생명과학 도구/서비스	-0.84
4	소재	-0.78		
	금속/채광	2.57	건축자재	-2.44
5	유틸리티	-1.03		
	전기 유틸리티	-0.78	독립 전력 생산업체/	-5.41
6	부동산	-1.95		
	건강관리 리츠	1.72	사무실 리츠	-3.42
7	산업재	-1.99		
	건설/엔지니어링	-0.32	복합기업	-3.92
8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2.06		
	다양한 통신서비스	0.39	양방향 미디어/서비스	-2.49
9	금융	-2.23		
	보험	-0.46	소비자 금융	-3.95
10	자유소비재	-2.82		
	전문 소매	-1.11	자동차	-4.08
11	정보기술	-2.94		
	S/W	-1.75	IT서비스	-4.26

● 종목 수익률 상하위 TOP 5 (%)

	UP	1D	DOWN	1D
1	샌디스크 /DE	9.5	넷앱	-9.4
2	앨버말	5.8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라	-7.5
3	익스팬드 에너지	4.9	델 테크놀로지스	-7.4
4	컨스텔레이션 브랜즈	4.5	쓰리엠	-7.0
5	뉴몬트	4.2	룰루레몬 애슬레티카	-6.5

● ETF 수익률 상하위 TOP 5 (%)

	UP	1D	DOWN	1D
1	UNG	19.7	BTF	-7.7
2	UNL	9.2	KEUA	-7.1
3	PLTM	7.4	BITO	-6.3
4	PPLT	7.1	BITS	-6.1
5	GDXJ	6.2	KRBN	-5.6

● ETF 거래량 상위 유니버스: 수익률 TOP 10

	Top ETF	추이	1D
1	BOIL		36.7
2	BOIL		36.7
3	UVIX		22.1
4	UVXY		16.8
5	SMST		15.7
6	MSTZ		15.3
7	BTCZ		13.2
8	SBIT		12.7
9	NUGT		11.4
10	VIXY		11.2

● 테마 ETF 수익률 (%)

	테마	Ticker	1D	20D 추이
1	천연가스	NANR	1.5	
2	농업	MOO	-0.2	
3	핵에너지	URA	-0.5	
4	통신	IYZ	-0.7	
5	웰니스	ECON	-0.8	
6	모빌리티	DRIV	-1.4	
7	인프라	GRID	-1.4	
8	재생에너지	FAN	-1.6	
9	밀레니얼	MILN	-1.7	
10	소비재	XRT	-1.8	